

『홍범황극내편보해(洪範皇極內篇補解)』의
판본과 이순(李純)의 상수역학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홍범황극내편보해』를
중심으로-

김 정 철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I. 들어가며
- II. 『홍범황극내편보해』의 판본과 특징
- III. 「범례」에 나타난 저술 기준과 각종 정보
- IV. ‘보해’와 ‘석왈’에 나타난 이순의 사상
- V.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8558)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이순의 『홍범황극내편보해』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고 『보해』 가운데 이순의 견해가 직접 반영된 ‘석왈(釋曰)’ 등을 통해 그의 상수역학 이해와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전하는 『홍범황극내편보해』 3종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필사본 『보해』는 동산본 『보해』와 같은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일종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견된 동산본 『보해』는 현전하는 판본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범례」는 저술 의도와 기준, 참고 자료를 명시하고 있어, 『보해』에 관한 정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으나 조선시대 『홍범황극내편』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박세채의 『범학전편』 수록 『보해』는 구성과 체제가 다르고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내용을 온전히 수록하였고, 중간본 『성리대전』의 보주, 장품의 「황극내편수총명」, 한방기의 『홍범도해』 등 관련 자료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홍범황극내편』의 종합적 주해서로서 가치가 있다.

이순의 사상은 서문과 본편의 보해 외에도 「내편수총명보해」의 81 범수에 대한 ‘보해’와 ‘석왈(釋曰)’에서 파악할 수 있다. ‘보해’는 경학적인 전거에 충실한 해설이며, ‘석왈’은 이순의 독자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순은 채침의 상수역학적 사유를 계승하고 있으며, 81범수를 홍범구주에 배속하고자 하였다. 이순의 배속 방식은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지점도 나타난다.

동산도서관 소장 『홍범황극내편보해』는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이순이 편찬한 모습에 가장 가까우며, 특히 온전하게 보존된 「범례」를 통해 각 판본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순의 사상이 드러난 곳을 더 정밀하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홍범황극내편보해, 이순, 상수역학, 범학전편, 동산도서관.

I. 들어가며

본 논문의 목적은 16세기 조선의 학자 이순이 지은 『홍범황극내편보해(洪範皇極內篇補解)』의 판본을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순이 직접 주해한 부분에 주목하여 그의 상수역학을 조망해보는 것이다.

『홍범황극내편보해』의 저자인 이순(李純, ?~?)에 대해서는 생몰년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정보가 많지 않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순은 15세기 말에 태어나 16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인물로, 여주목사 등을 지냈으며 이황과 교유한 기록이 남아있다.¹⁾ 이황은 이순이 여주목사를 지내던 시절 직접 만나 『홍범황극내편』, 『참동계』의 수련법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이 기록에서 이황은 스스로 주석을 달아 이순이 20여 년의 연구 끝에 『홍범황극내편』을 주해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²⁾

이순의 『홍범황극내편보해』(이하 『보해』로 약칭함)는 조선 최초의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 주해서이다. 『홍범황극내편』이 수록된 『성리대전』은 이미 세종 무렵에 조선에 전해졌지만, 『성리대전(性理大全)』 수록 『홍범황극내편』은 미완성 상태였고, 별도의 주석이 없는 상태로 전해져 난해서로 인식되었다.³⁾ 이러한 탓에 정밀한 연구는 중간본 『성리대전』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던 16세기 이후에서야 이루어

1) 선행 연구에서 이순의 생몰년은 1480~1540년 무렵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선경, 「조선 전기 상수역학연구 『홍범황극내편』의 수용과 이해 -이순(李純)의 『홍범황극내편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6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를 참고 바람.

2)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與驪州牧李公純, 訓導李翁遊神勒寺」 “公嘗註皇極內篇, 積功二十餘年而始就。是日, 論內篇及參同契修鍊之法。”

3) 조선시대의 『성리대전』 전래와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철, 「낙저 이주천 「신증황극내편(新增皇極內篇)」의 특징과 가치 -조선시대 『홍범황극내편』 연구사의 맥락에서-», 『민족문화논총』81, 2022를 참고 바람.

졌고, 이순의 『보해』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홍범황극내편』은 상수역학의 갈래 가운데서도 하락학(河洛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하락학이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관한 학문을 뜻하는데, 특히 하도와 낙서의 원리가 하나로 일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락학은 상수역학의 갈래로서, 하락학의 사유에서 하도의 원리는 『주역(周易)』으로 계승되었고 낙서의 원리는 『홍범(洪範)』으로 계승되었다고 보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이다.⁴⁾ 하락학은 송대 진단(陳搏, 871?~989)과 유목(劉牧, 1041년 이전 사망)에게서 단초를 찾을 수 있으며, 주희(朱熹, 1130~1200)와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다.⁵⁾

채원정의 아들이면서 주희의 제자이기도 한 채침(蔡沈, 1167~1230)은 이들의 사유를 계승 발전시켜 『홍범황극내편』을 저술하였다. 채침은 낙서의 9수와 홍범구주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규명하고, 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기존에 없었던 81범수의 점법 체계를 정리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역학계몽』에서 주희는 하도와 『주역』, 낙서와 「홍범」의 계승 관계를 분명히 언급하기는 했지만, 역학의 근원을 논하는 맥락에서 하도와 낙서를 말하였을 뿐, 낙서와 「홍범」의 관계나 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채침은 네 명의 성인을 거쳐 『주역』은 온전히 전해졌지만, 낙서와 「홍범」에 대해서는 우임금이 낙서를 받고 기자가 「홍범」을 전한 뒤로 그 명맥이 끊어졌다고 보면서 『홍범황극내편』을 저술하였

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수역학’이라는 용어와 ‘하락학(河洛學)’이라는 용어를 번갈아 쓰고자 한다. 하락학은 하도와 낙서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역학의 기원을 논할 때 주로 등장한다. 그 과정에서 하도(河圖)는 상(象)과 역(易)과 관련되고 낙서(洛書)는 수(數)와 홍범(洪範)을 관련지어 논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하락학은 넓은 의미에서 상수역학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상수역학은 대부분 ‘하락학’ 혹은 ‘역상범수(易象範數)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5) 진단과 유목의 도서역학적 사유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이대승, 「송대 도서학과 주자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를 참고 바람.

다. 『홍범황극내편』은 이처럼 낙서와 「홍범」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규명하고, 기존 하락학의 사유를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채침은 주희의 요청으로 『서집전』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서경』의 대표적인 주해서로 공인받아 명대에는 『서전대전(書傳大全)]』으로 편집되어 경학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채침의 도통적 권위도 높아져, 또 다른 저술인 『홍범황극내편』 역시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전해졌고, 이후 과거 시험은 물론 성리학 학습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⁶⁾

문제는 『홍범황극내편』이 미완성 상태로 전해졌다는 점이다.⁷⁾ 상·중·하로 이뤄진 본편은 온전하지만, 81범수의 도상과 점사를 서술한 「황극내편수총명(皇極內篇數總名)」은 첫 번째 범수인 ‘원(原)’에만 ‘수왈(數曰)’로 시작하는 해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점사만 있고 해설이 누락되어 있다. 누락된 해설의 보완은 후대 학자들의 몫이 되었으며, 채침의 사유를 계승한 명대의 몇몇 학자들이 점사의 해설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명대 학자 응종립⁸⁾의 『홍범구주수해(洪範九州數解)]』⁹⁾와 중간

6) 채침의 권위가 상승한 정황은 『성리대전』보다 이른 시기에 황서절(黃瑞節)이 편집한 『주자성서(朱子成書)]』와 비교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성리대전』에 수록된 7종의 개별 저술은 대부분 『주자성서』에 수록된 문헌과 일치하지만, 『홍범황극내편』만이 주희 후대 인물의 저술로서 예외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자성서』의 수록 문헌과 상세한 분석은 吾妻重二, 『宋代思想の研究』, 關西大學出版部, 2009, 123~125쪽 참고.

7) ‘내편’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외편과 구별하여 저술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전서총목제요』를 기술한 사고관신들조차 그 구분의 근거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결국 영락본 『성리대전』 수록 『홍범황극내편』을 그대로 실었다.

8) 응종립(熊宗立, 1409~1482): 명나라 복건(福建) 건양(建陽) 사람으로, 자는 도현(道軒). 음양의복(陰陽醫卜)에 두루 능하였고, 유섬(劉刻)에게 수학하였다. 저서로 『홍범구주수해(洪範九疇數解)]』와 『소문운기도괄정국입성(素問雲氣圖括定局立成)]』 등이 있다.

9) 현재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홍범구주수해』는 필사본인데다, 권차에 결락이 있는 불완전한 판본이다. 수록된 내

본 『성리대전』에 수록된 보주(補註)이다.¹⁰⁾ 이들은 모두 명대 『성리대전』이 편찬된 이후 『홍범황극내편』에 대한 주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장품(章品, 1439~1526)의 보주는 중간본(重刊本)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명대 각 지역에서 성리학 학습 교재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까지 전해져 영향을 미쳤다.¹¹⁾ 이순의 『보해』는 채침의 사유는 물론 중간본 『성리대전』 등의 자료가 조선에 전해져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보해』의 세 가지 판본 중에서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보해』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동산본 『보해』는 나머지 두 판본에 비하여 가장 오래된 판본일 뿐 아니라 이순이 저술한 본래 형태에 가장 가깝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¹²⁾ 또 동산본 『보해』를 상세히 분석하면 나머지 두 판본의 성격

용 역시 후대에 여러 자료를 첨입한 흔적이 있으므로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81범수 해설에 ‘解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형식만 언급하기로 한다. 『四庫全書存目叢書』 卷57 수록 『洪範九疇數解』, 齊魯書社出版社, 1997 참고.

- 10) 박세체는 『범학전편』 「범례」에서 보주의 저자를 장품(章品)이라고 하였으나, 장품은 81 범수를 해설한 「皇極內篇數總名」의 저자일 뿐 보주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장품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김정철, 「박세체 『範學全篇』의 판본과 구성 고찰- 장서각본 계열과 규장각본 계열을 중심으로 -」, 『장서각』43, 2020, 3장을 참고 바람.
- 11) 조선에 유입된 중간본 『성리대전』 판본은 일본에도 전해졌다.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홍범전서(洪範全書)』에 수록된 보주가 그 대표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범학전편』의 두주에 표기된 글자 정정 내용과 『홍범전서』의 글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박세체는 당시 조선에 유통되었던 중간본 『성리대전』과 『홍범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본(異本)을 토대로 교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전해진 중간본 『성리대전』의 판본과 분석은 미우라 슈이치(三浦秀一), 『科擧と性理學』, 研文出版, 2016, ‘性理大全の書誌學的考察’ 참조.
- 1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홍범황극내편보해』(귀) 188.5 이순(하)는 전체 6권 구성 가운데 1권~4권까지만 있고, 나머지 5권~6권은 한방기 저술의 『洪範皇極內篇圖解』(귀) 188.5 한방기(하)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두 책은 6권 2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헌으로 보아야 한다. 방문 당시 두 책을

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순의 사유도 상세하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우선 현전하는 세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각자가 지닌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산본 『보해』에만 온전히 수록된 「범례」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보해』의 특징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동산본 『보해』의 내용 가운데 이순의 역학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추출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II. 『홍범황극내편보해』의 판본과 특징

1. 『홍범황극내편보해』의 3종 판본 비교

『홍범황극내편보해』의 판본을 비교하기 전에 이 책의 전승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순의 『보해』는 이미 간행 당시부터 직접 본 사람이 드물었고, 이런 정황이 현전하는 판본들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황(李滉, 1501~1570)은 이순과 직접 교유한 사이였음에도 이 책을 직접 보지 못한 듯한데, 제자 황준량(黃俊良, 1517~1563)과 주고받은 편지에 그 단서가 남아있다. 황준량은 이황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또 들으니 『홍범홍범내편』의 주해가 사문(斯文) 이순(李純)에게서 나왔는데, 연구한 것이 매우 정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목 있는 사람의 교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내용 하나하나가 구봉(九峯·채침)의 종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선생께서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¹³⁾

이 편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시 이순의 『보해』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산도서관 측에 감사드린다.

13) 『錦溪集』外集 卷7 “且聞洪範內篇註解，出於李斯文純，考究甚精云。然未經具眼之斤，未知一一能契九峯宗旨否...不審左右亦嘗一閱否。”

가 이미 간행에 가까워졌다는 사실과 황준량이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염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준량의 물음에 답한 이황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사문의 『홍범내편해(홍범황극내편보해)』는 내가 듣고서 보고자 한지 오래 되었으나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 만약 간행되어 마땅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홍범황극)내편』의 의리는 본래 분명치 않은데, 일찍 보았다 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는가.¹⁴⁾

이처럼 이황은 이순의 『보해』를 직접 보지 못했다. 황준량의 질문은 『보해』가 간행되기 전에 이황의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황은 여전히 이 책을 보지 못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퇴계선생속집(退溪先生續集)』에 수록된 『회시조사서(回示詔使書)』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이황은 책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¹⁵⁾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황은 이순의 책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보적 평가는 퇴계학과 안에서 그대로 전승되었는데, 이순의 『보해』는 간행되기는 했으나 후대에도 이 책을 직접 볼 수 있었던 학자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에 필사본 형태의 축약본이 유통되기도 하였다.¹⁶⁾

현전하는 『보해』의 판본들 역시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14) 『退溪先生文集』 「答黃仲舉」 “李斯文洪範內篇解，混聞而欲見久矣。不得一寓目，今若刊行，則當得一見，何幸何幸。內篇義理，本所未曉，假使早見，何能有所容喙於其間耶？”

15) 『退溪先生續集』 「回示詔使書」 “近世有李純者，自謂能通其說，而至著爲註解，亦未知其果無謬否也。”

16) 후대에 『보해』를 구하기 어렵고 그 축약 필사본이 존재한 정황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大山集』 권16, 「答琴顯伯」 “爲註解內篇，其凡例曰，撰著之法，得熊氏九疇解著法甚詳密，某又因本篇圖，別爲圖添入熊氏所撰十條云云。得此則或可窺其彷彿，而此書行於世絕妙，適得抄謄小冊而圖又不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보해』는 후대에 만들어진 축약 편집본이다. 둘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보해』는 이순이 저술한 당시의 판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셋째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범학전편(範學全篇)』에 수록된 『보해』이다. 박세채는 『홍범황극내편』의 주석으로 중간본 『성리대전』에 실린 보주와 이순의 『보해』를 나란히 편집하여 수록하였는데, 이는 후대의 『보해』 활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세 가지 판본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범황극내편보해』의 3종 판본 구성 비교>

판본	필사본 『보해』	동산본 『보해』	『범학전편』 수록 『보해』
장절 및 제목	「洪範皇極內篇補解序」	「洪範皇極內篇補解序」	「구봉채씨자서」아래에 ‘李純曰’ 이하 협주 형태로 요약하여 수록
	없음	「凡例」	※「범례」 6항목 가운데 3항목만 「구봉채씨자서」아래에 ‘李純曰’ 이하 협주 형태로 수록
	「龜峯蔡氏自序」	별도 제목 없이 ‘龜峯蔡氏自序曰’로 시작	별도 제목 없이 卷之三 「皇極」 서두에 ‘龜峯蔡氏自序曰’로 시작
	內篇 上	內篇 上(38장 분절)	內篇 上
	內篇 中	內篇 中(37장 분절)	內篇 中
	內篇 下	內篇 下(6장 분절)	內篇 下
	「內篇數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별도 제목 없음. ※「內篇」과 「皇極內篇數總名」에 협주 형태로 ‘補解’수록
	「수명차제」 「수명대대」 「수명잡의」 「논설시」	제목·洪範皇極內篇數補 「수명차제」 「수명대대」	「수명차제」 「수명대대」 「수명잡의」 「논설시」

		「수명잡의」 「논설시」	(모두 협주 형태로 수록)
	「보해후록」 후반부 결락	「보해후록」 전문 결락	「보해후록」 전문 수록 (전반부 채침의 묘표는 「箕子」 편에 수록)
	미수록	『홍범황극내편도해』 ¹⁷⁾¹⁸⁾ 서문에 등당(鄧鏗) 의 지(識), 한방기 의 자序를 대문으 로 수록	『범학전편』 「皇極」 후반부에 수록. 판본에 따라 ‘洪範圖解’ ‘洪範皇極內篇 圖解’로 제목을 다르게 편집함. 한방기의 자序를 대문으로 수록하고 등당의 識를 협주로 처리함

2. 판본별 특징

1) 필사본 『보해』의 특징

필사본 『보해』는 동산본 『보해』의 기본적인 구성과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순의 『보해』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간략하게 수록하였고 이순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81개의 장절을 반영하지 않았다. 81개의 장절 구분은 이순이 81 범수의 의미를 편집에 반영한 것인데, 필사

- 17) 『홍범황극내편도해』: 명대 학자 한방기(韓邦奇, 1479~1556)의 저술로, 본래 제목은 『洪範圖解』이다. 박세채는 명대 학자 양유총(楊維聰, 1490~1550)이 편집한 『성리제가해(性理諸家解)』에 수록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성리제가해』는 16세기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황은 『性理諸家解抄』라는 저술을 통해 『성리제가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의문점을 서술한 바 있다. 양유총과 『성리제가해』에 관해서는 김정철,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3장을 참고 바람.
- 18) 『범학전편』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편집된 판본에는 ‘홍범도해’로 되어 있으나 후대에 편집된 판본에는 ‘洪範皇極內篇圖解’로 수정되어 있다. 이순이 어떤 『홍범도해』의 판본을 활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순 역시 저술 전체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홍범도해’를 ‘홍범황극내편도해’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학전편』의 판본과 편집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김정철(2020)을 참고 바람.

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범학전편』에도 81 장절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필사본 『보해』의 편집자와 박세채는 의도적으로 이순의 편집을 따르지 않고 본편을 상중하로 편집한 채침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보해』의 특징은 「내편」 상·중·하에서 찾을 수 있다. 필사본 『보해』는 『홍범황극내편』의 본편 상·중·하 전체를 대문으로 처리하였지만, 이순의 『보해』에 대해서는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핵심 구절만 선택하여 협주로 수록하였다. 이에 비하여 동산본 『보해』와 『범학전편』 수록 『보해』는 이순의 견해를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내편」 상 첫 단락의 주석을 나머지 두 개 판본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판본	대문	주석
필사본 『보해』	冲漠無朕，萬象具矣。動	此指理而言。
동산본 『보해』	靜無端，後則先矣。器根	冲漠，冲融冥漠之意，朕分也。萬象萬物之象也。動先陽也，靜後陰也。器形而下之謂，卽陰陽也。道理也，一太極也。萬萬物也，混合也，萬復一也，關開也。一分萬也。數範數也，疇九疇也，等類也，行五行也。微而顯，莫顯乎微也，費而幽，費而隱也。神應不測，張子所謂一故神兩在故不測是也。此指理而言。
『범학전편』 수록 『보해』	其無窮矣。是故數者計乎此者也。疇者尋乎此者也。行者運乎此者也。微而顯，費而幽，神應不測，所以妙乎此者也。	

이처럼 필사본 『보해』는 『홍범황극내편』 본편의 본문을 대문으로 삼고, 『보해』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주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본편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또 필사본 『보해』의 필사자는 이순의 견해 가운데 ‘보해’와 ‘석왈’을 구분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하였다. 이순은 「범례」에서 보해와 석왈을 분명히 구분하였는데,¹⁹⁾ 필사자가 동산본 『보해』에 첨부된 「범례」를 확

19) 이하 3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지만 이어지고, 5-1 이후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필사본 『보해』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사자는 동산본 『보해』와 동일한 내용을 먼저 축약 필사한 뒤에 「황극내편수총명」의 주석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미완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필사본 『보해』는 본편에서 이순이 각 장의 핵심 요지를 서술한 부분만 취하여 필사하였고, 81범수에 대해서는 보해를 온전히 수록하되, 중간본 『성리대전』 수록 장품의 주석을 추가로 필사하다가 미완성 상태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사본 『보해』에는 참고한 저본 문제가 있다. 필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중간본 『성리대전』에 수록된 보주(補註)를 추가로 필사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필사의 저본이 동산본 『보해』가 아니라 『범학전편』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²¹⁾ 기본적으로 필사본 『보해』는 채집이 저술한 『홍범황극내편』의 원문을 대문으로 처리하고 『보해』의 내용을 한 칸 내려서 처리하는 동산본 『보해』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산본 『보해』의 축약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로 필사된 보주를 살펴보면 동산본 『보해』에는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사본 『보해』는 동산본 『보해』만 저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주 전체가 수록된 『범학전편』 또는 중간본 『성리대전』 등을 함께 참고하여 필사한 미완성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 이에 대해서는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5장을 참고할 것. 동산본 『보해』의 「범례」에서 보주의 출처를 「唐本 性理大全」이라고 명시하였다.

21)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순의 『보해』가 간행 당시는 물론 후대에도 구하기 어려웠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범학전편』은 첫 간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지역에서 간행을 시도한 것이 확인된다. 『범학전편』의 교정과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철, 「박세채 『範學全篇』의 판본과 구성 고찰 - 장서각본 계열과 규장각본 계열을 중심으로 -」,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을 참고.

2) 동산본 『보해』의 특징

동산본 『보해』의 구성과 규모를 살펴보면, 『홍범황극내편』 전체를 대상으로 주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홍범황극내편』의 내용을 해설하거나 보완하고자 했던 명대 학자 장품의 「황극내편수총명」, 응종립의 『홍범구주수해』, 한방기의 『홍범도해』는 모두 『홍범황극내편』을 보완한 저술이기는 하지만, 보완의 대상이 제각각이었다. 이들의 주된 보완의 대상은 81범수와 점사를 수록한 「황극내편수총명」이었다. 이 중 장품과 응종립의 저술은 채침이 미완성한 ‘수왈’을 보완하고자 저술을 남겼다.²²⁾

한방기는 『홍범황극내편』의 내용 가운데 소략한 점법의 운용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채침은 본편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점법의 운용을 논하였는데, 그 상세한 운용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한방기는 『홍범도해』를 통해 점법의 운용 과정을 서술하여 『내편』 본문에서 서술한 원리와 81 범수의 점사, 점법의 운용 과정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 보주(補註)는 중간본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저자를 알 수 없고 그 대상도 본편에 한정되어 있다.²³⁾

이들과 달리 이순은 『홍범황극내편』의 본편과 「황극내편수총명」의 81

22) 이들도 ‘數曰’을 직접 보완한 것은 아니었다. 장품은 ‘數行’과 ‘疇曰’, 응종립은 ‘解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인 보완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채침의 경학적 권위를 존중하여 주해한 결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17세기 말에 낙저 이주천이 『신증황극내편』을 지어 「황극내편수총명」의 미완 부분을 직접 보완하고자 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김정철 「낙저 이주천 『신증황극내편』의 특징과 가치-『홍범황극내편』 연구사의 맥락에서」, 『민족문화논총』, 2022를 참고 바람.

23) 중간본 『성리대전』은 판본이 다양하고, 주석은 ‘補註’뿐 아니라 ‘輯覽’, ‘集解’ 등의 이름으로 수록하여 저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익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석을 익명으로 처리한 까닭에 대하여 미우라 슈이치(三浦秀一)는 황제의 명으로 공식적으로 편찬된 『性理大全書』와 달리 중간본 『성리대전』은 각 지역에서 교육과 학습을 위해 자체 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三浦秀一, 『科學と性理學』(2016) 참조.

범수 전체를 주해하였고, ‘석왈(釋曰)’을 부기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동산본 『보해』는 이순이 『홍범황극내편』의 구성과 편집, 내용 전체를 해설하고자 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개의 판본과 구별되는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동산본 『보해』의 발견은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 필사본 『보해』, 『범학전편』과 내용 비교를 통해 필사본 『보해』와 『범학전편』 수록 『보해』의 저본이 동산본 『보해』와 같은 계열의 판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필사본 『보해』는 내용이 축약되고 일부 미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체제와 형식이 동산본 『보해』와 같기 때문이다.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범학전편』에 수록된 『보해』 역시 전체 내용이 동산본 『보해』와 대부분 같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학전편』에 협주 형태로 수록된 『보해(補解)』가 이순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인지 아니면 박세채 자신의 견해를 추가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세채는 일부 요약하거나 생략한 부분이 있지만, 동산본 『보해』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러므로 『범학전편』 수록 『보해』에는 편자인 박세채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범학전편』 「범례」의 서술은 물론, 박세채의 저술 경향과도 일치한다. 박세채의 견해는 서문과 범례, 일부 안설(按說)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²⁴⁾

3) 『범학전편』 수록 『보해』의 특징

『범학전편』 수록 『보해』의 특징은 우선 편집을 들 수 있겠다. 박세채는 이순의 『보해』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중간본 『성리대전』에 수록된 『보주(補註)』와 장품의 「황극내편수총명」의 주석 등과 나란히 협

24) 『범학전편』에 수록된 박세채의 견해에 대해서는 김정철의 박사학위논문(2021)을 참고.

주 형태로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박세채는 이순의 『보해』를 명대 학자들의 주석과 나란히 배치하여, 조선에서도 『홍범황극내편』 관련 주해가 존재함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박세채는 『범학전편』에 한방기의 『홍범도해』까지 수록하면서, 중국과 조선을 아우른 종합적 성격의 『홍범황극내편』의 주석서를 편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반면 『보해』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순은 상중하세 편으로 구성된 「내편」의 본문을 81장 체제로 구분하여 편집하였지만, 박세채는 채침의 편집만 반영하였고, 이순의 81편 편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필사본 『보해』와 마찬가지로 채침의 편집만을 따르고 이순의 의도적인 편집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범학전편』 수록 『보해』의 가치는 동산본 『보해』에 결락된 「보해후록(補解後錄)」의 내용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산본 『보해』의 가장 후반부에 수록된 「보해후록」은 훼손되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범학전편』에 수록된 「보해후록」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범학전편』에 수록된 「보해후록」의 내용이 필사본 『보해』의 수록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필사본 『보해』와 비교해보면, 『범학전편』은 「보해후록」의 전반 일부 생략하였다. 필사본 『보해』의 「보해후록」은 진덕수가 지은 채침의 묘표 내용으로 ‘서산진씨왈(西山眞氏曰)’로 시작되지만, 『범학전편』의 「보해후록」에서는 묘표의 내용을 생략하고, ‘신안호씨왈(新安胡氏曰)’로 시작된다. 그 이유는 박세채가 서산진씨가 지은 채침의 묘표를 『범학전편』의 다른 편(「箕子」)에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박세채는 이순의 『보해』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은 전체 편집을 고려하여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세채가 『보해』의 판본과 내용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박세채는 「범례」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설을 달아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범례」에서 이순은 내편 하의 주석에 대해 ‘본주를 남

기고 ‘보해’를 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내용에는 보해가 포함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순이 직접 그렸다고 한 도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산본 『보해』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를 통해 박세채가 참고한 판본이 동산본 『보해』와 같은 계열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Ⅲ. 「범례(凡例)」에 나타난 저술 기준과 각종 정보

동산본 『보해』의 가장 큰 특징은 필사본 『보해』나 『범학전편』과 달리,²⁵⁾ 「범례(凡例)」 전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례」에는 책을 편찬하는 목적과 기준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6개 항목의 「범례」 전체를 번역하고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1. 『보해』의 저술 기준과 근거

내편수(81수)의 原 아래 수왈 이하 스무 개 글자가 있는데, 이를 따라 주석(紬釋)하면 잠(潛) 이하 81장의 해설을 보충할 수 있다. 原(1-1범수)과 潛(1-2 범수)을 해설한 것은 곧 본편 81 범수의 점사(數辭)를 써서 풀이한 것인데, ‘수왈’이라는 두 글자로 보건대 아마도 『주역』에 「단전」과 「상전」이 있는 것과 같은 듯하다. 나는 아직 감히 이와 같은 것을 본떠 직접 해설하지는 못하고 다만 81 범수의 점사를 풀이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출처 없는 글자는 하나도 없다.²⁷⁾

이순은 가장 먼저 보해(補解)를 저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은

25) 필사본 『보해』에는 「범례」가 빠져 있고, 『범학전편』에는 「범례」 가운데 앞의 3항목만 뽑아 ‘보해’의 일부로 인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다.

26) 이하 인용된 원문은 모두 동산본 『보해』 수록 「범례」에 수록된 것이다.

27) 『洪範皇極內篇補解』 「凡例」 “一. 內篇數原下, 有數曰以下二十字, 其因是紬釋得以補潛以下八十一章解. 原潛則用本篇數辭爲解, 以數曰二字觀之, 疑若易之有象象. 某未敢借擬如此, 只解數辭耳. 然無一字無來處.”

자신의 해설을 ‘보해’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는 했지만, 그 목적은 채침이 미완성으로 남긴 점사 해설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즉 이순은 1-1 범수 원(原)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채침의 해설을 모범으로 삼아 나머지 80개 범수의 해설을 시도하였다. 채침이 미완으로 남긴 점사 해설인 ‘수왈’ 역시 직접 보완하지는 않고, 점사를 해설한다는 의미로 ‘보해(補解)’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본편(本篇)-수(數)-사(辭)의 구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순은 『홍범황극내편』의 구성을 크게 본편-81수-점사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자신이 채침이 미완한 ‘수왈’을 직접 보완하지 않고 단지 풀이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 ‘수왈’을 『주역』의 단전과 상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하락학의 사유에 따라 낙서의 원리를 계승한 『홍범황극내편』에도 『주역』의 단전과 상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하도와 『주역』이 계승 관계에 있듯 낙서와 「홍범」도 계승 관계에 있고, 『주역』과 「홍범」은 하나의 원리를 담고 있으므로, 『주역』에 단전과 상전이 있듯 『홍범황극내편』의 구성에도 단전과 상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순은 마지막으로 경학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²⁸⁾ 실제로 『보해』의 점사 해설에는 홍범구주의 각 조목과 관련된 사안들과 『예기(禮記)』 「월령(月令)」 등 각종 절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풀이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81 범수와 절기의 부합을 중시한 『보해』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28) 이러한 점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순은 채침이 미완성한 점사의 풀이를 완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체가 『범학전편』에서 「황극내편수총명」 81 범수 점사의 주석으로 이순의 『보해』를 전면에 내세운 까닭은 『보해』가 조선 최초의 『홍범황극내편』 주해라는 점도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세체는 점사의 해설을 남긴 응종립의 『홍범구주수해』를 구하지 못한 탓에, 점사의 풀이는 이순의 『보해』에 의존해야 했다.

2. 직접 보완을 시도한 ‘홍범황극내편수해’

본편과 81 범수에 대한 해설의 말미에는 수명·차제·대대·논설시 네 편을 두었는데 내가 보충한 것이니, 또한 『주역』에 「서괘전」 「잡괘전」이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과 같다.²⁹⁾

이 단락은 이순이 채침의 미완성 내용을 직접 보완한 사례를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본편과 81범수에 대해서는 풀이〔解〕에 그쳤지만, 바로 뒤에 ‘홍범황극내편수해(洪範皇極內篇數解)’라는 별도의 장을 배치하고 「수명차제」 「수명대대」 「수명잡의」 「논설시」 네 편을 직접 지어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주역』에 있는 「서괘전」과 「잡괘전」에 비유하고 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역』에 비유하여 채침이 상전과 단전을 지은 인물이라면, 이순 자신은 그 뒤를 이어 「서괘전」과 「잡괘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서괘전」과 「수명차제」는 각각 64괘와 81 범수의 순서와 원리,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³⁰⁾

3. 81수의 장절 반영

본편은 선생(구봉 채침)께서 이미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셨는데, 나는 지금 정리하여 3권으로 만들었다. 또 81장으로 나누었으니, 본편의 수와 응한다. 한편에는 본주를 두었고, 상중 두 편에는 내가 보충하고 풀이하였다.³¹⁾

본편을 81장으로 편집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순은 채침이 본편

29) 『洪範皇極內篇補解』 「凡例」 “一. 本篇數解末, 有數名·次第·對待·論撰著等四篇, 某之所補, 亦如易之有序卦雜卦傳而不可闕者也.”

30) 이선경, 앞의 논문, 76~79쪽.

31) 『洪範皇極內篇補解』 「凡例」 “一. 本篇, 先生已分爲上中下三篇, 某今釐爲三卷. 又分章爲八十一, 以應本篇數. 下篇則有本註, 上中兩篇則某補而爲之解.”

을 3편으로 구성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이들을 다시 81장으로 분리하여 편집하였다. 이순은 낙서의 수인 9수의 근본이 3이라는 수에 있고, 또 9수를 연역하면 81수로 확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장절의 편집에 반영하였다. 이것은 필사본 『보해』와 『범학전편』 수록 『보해』에 나타나지 않는 동산본 『보해』만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³²⁾

이 「범례」의 마지막 구절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본편 하에 본주를 두고 상중 두 편에만 보해를 달았다는 말인데, 본편 하에 있는 본주란 채침의 『서집전(書集傳)』에 있는 주석을 가리킨다. 이 부분까지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만, 문제는 이순이 하편의 본주 뒤에 다시 보해를 첨부하였다는 사실이다. 박세채 역시 「범례」의 서술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는지 안설을 달아 의문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³⁾

4. 보주(補註)의 출처와 석왈(釋曰)의 의미

보주는 당본(唐本) 『성리대전』에서 나왔고, 석왈(釋曰)은 내가 해석하고 풀이하여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³⁴⁾

참고 자료의 출처와 자신의 견해에 관한 것으로 보주와 석왈에 대한 설명이다. 당본 『성리대전(性理大全)』은 영락본 『성리대전』이 아니라 후대에 다양한 주석을 첨부하여 간행된 중간본 『성리대전』을 가리킨다. 동산본 『보해』는 『범학전편』처럼 중간본 『성리대전』에 인용된 보

32) 이러한 특징은 81수를 확장하여 범언(範言)을 구성한 이주천의 사례와도 비교해볼 수 있겠다. 김정철의 논문(2022) 참고.

33) 『範學全篇』(규장각 소장본) 「皇極」 “愚按, 李氏既曰下篇有本註上中兩篇, 某補爲解, 今下篇亦有解, 未詳所謂.”

34) 『洪範皇極內篇補解』 「凡例」 “一. 補註出唐本性理大全, 釋曰則某釋某解之未瑩者.”

주 전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보주를 협주의 형태로 인용하였다.

‘석왈은 이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 석왈은 서문과 본편에 5회, 『황극내편수총명보해』에 13회 등장하는데, 대체로 보주에서 논하지 않은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거나 해당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채침의 말을 해설하고 풀이한 ‘보해’ 이외에 자신의 견해를 ‘석왈’로 첨부한 구성 역시 『보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설시법의 보완과 별도의 도상 제각

나는 보해를 짓고서 또 기우법, 배수법, 관수법을 지었으나 유독 설시의 법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결국은 응씨의 구주해를 얻었으니 시초의 법이 매우 상세하다. 내가 또한 본편(81범수)의 그림에 의거하여 별도로 그림을 만들고, 응씨가 편찬한 10개조의 말을 보태어 넣었다.³⁵⁾

이순은 스스로 「논설시(論揲蓍)」를 지어 「홍범」의 설시법을 논하였지만 흡족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순은 1차 완성 후 응종립의 『홍범구주수해』를 열람하고서 별도로 그림을 그리고 응종립의 말을 첨입하였다고 말한 것인데, 이 부분은 동산본 『보해』의 내용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후반부 「보해후록」 이하의 내용이 결락되어 있고, 박세채 역시 『범학전편』에서 이 내용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범례」의 말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이순은 『보해』의 1차 완성 이후에도 「후록」을 작성한 시점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한 듯한데, 일단 동산본 『보해』를 포함한 현전하는 판본에는 모두 개정 작업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산본 『보해』는 박세채가 참고

35) 『洪範皇極內篇補解』「凡例」“一. 某旣作補解, 又作得奇偶法, 排數法, 觀數法, 獨揲蓍之法未及融會. 最後得熊氏九疇解, 蓍法甚詳密. 某又因本篇圖別爲圖, 添入熊氏所撰十條云.”

한 『보해』와 동일한 계열의 판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정 작업이 완료된 최종완성본은 아니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순이 만든 도상과 첨입한 내용의 확인은 추후 추가적인 판본의 발견과 연구가 필요하다.

6. 글자의 음과 뜻을 기술한 근거

여러 글자의 음과 뜻은 예부운락 - 운부군옥 - 운회 등의 책을 아울러 활용하였다.³⁶⁾

「범례」의 마지막 항목은 글자의 음과 뜻을 서술한 출처를 표기한 것이다. 『예부운락』은 중국 송(宋)의 정도(丁度, 990~1053)가 지은 운서(韻書)로 고려 때부터 애용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은 송말 원초의 학자 음시부(陰時夫, ?~?)가 편찬한 유서(類書)로 1307년 완성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세종이 1435년 간행을 명하여 1437년 완성되었다. 운회(韻會)는 원대 학자 응충(熊忠)이 편찬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로 추정된다. 이 책 역시 세종이 1434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보급되었다.

이순은 이처럼 『홍범황극내편』의 주해 과정에서 글자의 음과 뜻을 자의적으로 풀이하지 않고 분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은 16세기 당시 학술 연구에 활용되었던 자료들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상 살펴본 동산본 『보해』에 수록된 「범례」는 다른 판본에 온전히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이순이 『보해』를 저술한 목적과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당시의 학술 연구 방식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겠다.

36) 『洪範皇極內篇補解』「凡例」“一. 諸字音義, 並用禮部韻略·韻府群玉·韻會等書.”

IV. ‘수해’와 ‘석왈’에 나타난 이순의 사상

『범학전편』 수록 『보해』와 필사본 『보해』, 동산본 『보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동산본 『보해』에서 이순의 견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서문과 81 범수 해설〔數解〕 및 총결, ‘석왈’을 표기한 부분이다. 서문과 범수 해설의 총결 부분 외에도 「내편」 상·중·하에 대한 해설과 81 범수의 해설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석왈(釋曰)’은 동산본 『보해』의 「범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순 자신의 견해가 분명하므로 주목할 만하다.

이 가운데 서문과 범수 해설의 총결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일부 다룬 바 있으므로,³⁷⁾ 이 장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순의 81 범수 해설인 ‘보해(補解)’와 총결, ‘석왈(釋曰)’을 중심으로 이순의 사상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1. 보해와 석왈의 성격

이순이 기술한 81 범수 해설은 채침이 남긴 점사 풀이에 충실하며, 경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음 2-6 범수인 ‘유(柔)’의 점사와 보해, 석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유(柔)는 은혜를 베푸는데 정도로써 하는 것이 이로우니, 부인은 길하고 남편은 흉하다.³⁸⁾

〔보해〕 柔는 陰의 性이고 仁의 體이다. 惠는 順함이니, 柔순하면서도 바름은 부인의 길한 도이지만 지아비에게 있어서는 흉하다. 이는 「洪範」 三德에 “유화

37) 선행연구에서는 서문에 나타난 독특한 기자(箕子) 인식과 총결에 나타난 인성론적 이해, 「수명차제」 「수명대대」 「수명잡의」 「논설시」 등에 드러난 이순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이선경의 논문(2019) 참고.

38)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柔, 惠, 利用正, 婦人吉, 夫子凶.”

하여 곱신거리는 자에게는 부드러움으로 극복하고 뒤로 물러나 숨으려 하는 자에게는 강함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 이 안에 있다.

[이순의 해석] 仁의 體는 유순하나, 그 用은 강하다.³⁹⁾

이처럼 이순은 『홍범황극내편』의 내용 가운데 81범수의 점사를 해설하는 것과 자신의 견해를 구분하였다. 보해에서 이순은 홍범구주의 하나인 삼덕(三德)의 내용을 인용하여 점사의 의미를 풀이하였다면, 석왈에서는 별도의 전거 없이 인(仁의) 체용(體用)을 강유(剛柔)로 이해하여 주해하고 있다. 이처럼 이순은 경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한 '보해'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석왈'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왈’은 서문에도 등장하는데, 다음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이순의 상수역학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하도와 낙서의 관계, 하락학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순의 해석] 천지의 일을 체인한다는 것은 乾이 위이고 坤이 아래이며, 해가 동쪽에서 뜨고 달은 서쪽에서 뜨며, 산은 서북에 우뚝하고 언뫼는 동남으로 흐르며, 우레가 동북에서 진동하고 바람이 서남에서 이는 것이니, 천지의 상을 체인할 수 있다. 천지의 일을 질서 짓는 것은 오행이 순환하고 사시가 1년을 이루며, 1부터 9까지의 상승하는 수가 그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니, 천지의 수를 질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수 없는 상이 있고 상 없는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리일 뿐이다.⁴⁰⁾

채침은 체(體)를 『주역』의 상(象)과 관련된 것으로, 기(紀)를 「홍범」의 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순은 그 구체적 사례를 제

39)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補解】柔陰之性而仁之體也。惠順也，柔順而正，婦人之吉道也，在夫子則凶。此洪範三德之爻友柔克而沉潛剛克之意，在其中矣。【釋曰】仁體柔而用剛也。”

40)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釋曰，體天地之撰者，乾上坤下，日東月西，山鎮西北，澤注東南，雷動東北，風起西南，則天地之象可體也。紀天地之撰者，五行循環，四時成歲，一二三四五六七八九相乘之數，流行於其間，則天地之數可紀也。然安有無數之象，無象之數哉。一理而已。”

시하고자 하였다. 즉 『주역』의 상에 대해서는 팔괘 상(건곤-일월-산택-뇌풍)의 여덟 방위를 들었고, 「홍범」에서 천지의 일을 질서 지은 사례로는 오행(五行)-사시(四時)-구수(九數)가 곱해지면서 유행하는 과정을 들었다. 이순은 이처럼 채침의 서문 내용을 수용하고 풀이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이순은 채침의 설명 가운데 하도와 낙서를 들면서 이들이 복희와 우임금 같은 성인들의 유산임을 강조하고, 상과 수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논한 부분을 부연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순은 하도와 『주역』, 낙서와 「홍범」을 상(象)과 수(數)의 계열로 나누어 논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결국 하나의 리를 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리하자면 이순은 채침의 하라학적 사유를 해설하면서 자칫 편향된 이해로 흐를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수해’ 총결에 나타난 이단 비판과 81 범수의 구조 이해

이순은 81 범수에 대한 보해인 수해(數解)의 총결에서 채침의 이단 비판을 수용하여 한당대 사람들이 도가와 불교에 미혹되어 복과 이로움을 추구했던 세태를 비판하고, 81 범수의 전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논하였다.

한당대 사람들은 방외(方外)에서 신선을 구하였고, 허무에서 석씨에게 미혹되어 복과 이로움을 구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멀리 갔는가. 1-1 原으로부터 5-5 中까지는 제왕이 교화를 일으키고 이치를 지극히 하는 공효이고, 5-6 伏으로부터 9-9 終까지는 군자가 자신을 닦고 성을 세우는 요점을 말하니, 천지의 큰 가을과 겨울로도 부족하지 않고, 인성의 선함이 물욕으로써 완전히 사라질 수 없으니, 모두 사람이 마음을 다함에 달려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⁴¹⁾

41)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夫其視漢唐人主求神仙於方外,

한당대(漢唐代) 사람들이 도교와 불교에 심취한 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홍범황극내편』에서 채침이 논한 바 있으므로 이순만의 특별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뒤이어 이순은 도교의 신선과 불교의 허무에는 없는 중요한 가치가 81 범수의 구조 안에 녹아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채침이 연역해낸 81 범수 안에 제왕의 교화는 물론 군자가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 범수 원(原)부터 5-5 범수 중(中)까지는 제왕의 교화에 해당하고, 5-6 범수 복(伏)부터 9-9 범수 종(終)까지는 군자가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81 범수를 통해 이로우미나 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왕의 교화와 다스림이 구현되고 군자가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해는 주희의 홍범구주 이해 방식과 비교해볼 때 매우 독특한 것이다. 주희가 「황극변」등을 통해 홍범구주의 5황극을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해석한 뒤로, 주자학자들은 5 황극 이전 1 오행부터 4 오기까지는 천인의 일이 성립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6 삼덕부터 9 오복육곡까지는 5황극의 정치를 검증하고 징험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⁴²⁾

81범수 역시 중앙에 있는 5-5를 황극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80수 역시 이러한 구조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순은 81범수를 이러한 구조로 읽지 않고, 5-5를 중심으로 제왕의 교화와 군자의 수양이 결합된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성인의 치인(治人)과 군자의 수기(修己)를 81 범수 안에서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기존 홍범구주를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어낸 것과 달리 인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경향

媚釋氏於虛無以邀福利，何其過矣。若自原至中言帝王興化致理之效，自伏至終，言君子修己立誠之要，則可見天地之元，不以秋冬而不足，人性之善，不以物慾而泯沒，在人之盡心焉已，其可忽諸其可忽諸。”

42) 주희의 「황극변」에 나타난 홍범구주 이해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김정철의 논문(2023)을 참고 바람.

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는 이순이 채침이나 명대 학자들의 견해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81 범수를 이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순은 치인(治人)이라는 정치의 영역과 수기(修己)라는 수양의 영역을 81범수의 전개 가운데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성인의 치인 과정을 군자의 수양론으로 수렴하여 독해한 것이다. 이는 ‘수기치인’이라는 유교적 정치론 구조를 홍범구주와 81 범수 이해에 반영하여 의리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 역상범수(易象範數)의 사유와 81 범수의 홍범구주 배속

이어지는 범수 해설의 총결 내용에서 이순은 채침의 역상범수(易象範數)의 하락학적 사유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81범수가 홍범구주에 배속되는 방식을 논하였다. 이순은 우선 채침이 전개한 역상범수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역(易)은 상(象)과 우수(偶數)를 주로 하고, 홍범(洪範)은 수(數)와 기수(奇數)를 주로 하니, 상과 우수를 주로 하는 것은 8이 64가 됨이니, 4와 8 또한 괘이고, 64 또한 걸려있다. 수와 기수를 주로 하는 것은 9에서 81이 됨이니, 9 또한 주(疇)이고, 81도 주(疇)이다. 상은 강유(剛柔)일 따름이므로 강유가 서로 사귀어 64가 되고, 수는 곧 차례(次第)일 뿐이므로 일과 부류에 따라 펼쳐져 81이 된다.⁴³⁾

『주역』의 상은 짝수의 계열로, 「홍범」의 수를 홀수의 계열로 나누고, 주역은 2의 제곱수로 이해하여 4상 8괘 64괘를 배속하였다. 홍범의 수는 낙서의 9수를 기준으로 삼아 81 범수를 배속하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易主象偶，範主數奇，主象偶者，八而六十，四八亦卦也，六十四亦卦也。主數奇者，九而八十一，九亦疇也，八十一亦疇也。象則剛柔而已，故剛柔相交而爲六十四。數則次第而已，故因事叙類而爲八十一。”

河圖	周易	象	剛柔	8卦	64卦	작수
洛書	洪範	數	次第	9數	81數	홀수

또 이순은 홍범구주와 81 범수를 다음과 같이 배속하였는데, 앞서 제왕의 교화와 군자의 수양으로 설명한 맥락과 다른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홍범구주는 모두 81장 안에 포함되며,中は 5황극의 지극히 높은 자리이다. 3팔정의 조목은 신信(1-4)과 흡翕(7-1) 사이에 흩어져 펼쳐지고, 6 삼덕과 2 오사는 결決(5-2)과 회餽(6-1)의 사이에 번갈아 나타나는데, 1 오행을 움직이는 것이 이 수이고, 4 오기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 수이며, 7 계의를 밝히는 것이 이 수이며, 8 서징을 징협하는 것이 이 수이다. 9 오복과 육극이 융합에 있어서도 이 수 밖으로 달아날 수 없으니, 삼대의 군주와 신하가 최고의 극을 세워 무강한 복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⁴⁴⁾

이순은 홍범구주를 81수에 배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 5-5 범수 中을 5황극(皇極)의 자리에 배당하였다. 하지만 앞서 5-5 中을 중심으로 제왕의 교화와 군자의 수양론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여기에서 이순은 팔정과 삼덕 오사를 각각 신(1-4)과 흡(7-1) 사이, 결(5-2)과 회(6-1)의 사이에 배속하였는데, 그 기준과 원리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홍범구주의 모든 항목이 81 범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순은 삼대의 군주의 신하들이 이러한 수의 차제에 따라 홍범구주를 펼쳤기 때문에 최고의 표준을 세워 무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로 총결을 마무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순은 채침의 하락학적 사유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설하고자 하였

44) 『洪範皇極內篇補解』 「洪範皇極內篇數補解」 “洪範九疇盡包乎八十一章之內，中爲皇極至尊之位，八政之日，散布於信翕之間，三德五事，迭見於決餽之際，而運五行者此數也，協五紀者此數也，明稽疑者此數也，驗庶徵者此數也，以至福極之應舉，莫逃乎此數之外，則三代君臣所以建非常之極，獲無疆之福者，正以此”

고 특히 경학적인 전거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범수와 홍범구주의 관계를 논할 때는 일부 독자적인 사유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발견되지만, 『보해』에 나타난 이순의 사상은 조선에서 최초로 『홍범황극내편』 전체를 주해한 인물로서 수(數)에 능통하다는 당대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이순의 『홍범황극내편보해』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고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동산본 『보해』에 수록된 「범례」를 분석하여 이순의 저술 의도와 기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해』 가운데 이순의 견해가 직접 반영된 ‘석왈(釋曰)’ 등을 통해 그의 상수역학 이해와 특징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홍범황극내편보해』 3종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필사본 『보해』는 동산본 『보해』와 같은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만든 일종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사자는 동산본 『보해』의 구성을 대체로 따르면서도 이순의 해설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수록하였고, 보주 등의 내용을 추가로 필사하였으나 미완성으로 남겼다.

최근 발견된 동산본 『보해』는 현전하는 판본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범례」의 내용은 저술 의도와 기준, 각종 참고 자료를 명시하고 있어, 『보해』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보해’와 ‘석왈’을 구분한 기준을 서술한 점 이순의 견해가 반영된 부분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용의 후반부가 훼손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

박세채의 『범학전편』 수록 『보해』는 동산본 『보해』와 필사본 『보해』에 결락된 「보해후록」을 온전히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구성과 체제가 다르고 「범례」는 일부만 수록하였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이순의 보해와 석왈을 대부분 온전히 수록하였고, 중간본 『성리대전』의 보주, 장품의 「황극내편수총명」, 한방기의 『홍범도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홍범황극내편』의 종합적 주해서로서 가치가 있다.

이순의 사상은 서문과 본편의 보해 외에도 「내편수총명보해」의 81범수 해설과 석왈에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해는 경학적인 전거에 충실한 해설을 시도하였고 석왈은 이순의 독자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순이 채침의 상수역학적 사유를 계승하고 있으며, 81범수를 홍범구주에 배속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순은 5·5범수 中을 황극에 배속하면서 81 범수를 제왕의 교화와 군자의 수양으로 나누어 이해하여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주의 항목을 각각 81수에 배당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발견되었다.

동산도서관 소장 『홍범황극내편보해』는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이순이 편찬한 모습에 가장 가까우며, 특히 온전하게 보존된 「범례」를 통해 각 판본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순의 사상이 드러난 곳을 더 정밀하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판본의 비교와 함께 이순의 사상 일부를 드러내는 데 그쳤을 뿐, 야마자키 안사이의 『홍범전서』와의 비교나 이순의 역학적 사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 투고일 : 2023.07.30. / 심사완료일 : 2023.08.27. / 게재확정일 : 2023.08.28.

<참고문헌>

1. 원전

『洪範皇極內篇補解』(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1220-6)

『洪範皇極內篇補解』(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귀) 188.5 이순하, 소장본 주기 귀046)

『洪範皇極內篇圖解』(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귀) 188.5 한방기하, 소장본 주기 귀047)

『錦溪集』

『大山集』

『範學全篇』(『韓國經學資料集成』57 수록, 규장각 소장본)

『四庫全書總目提要』

『新刊性理大全』(東京大 소장, 嘉靖三十九年進賢堂重刊本)

『退溪先生年譜』

『退溪先生續集』

『退溪先生文集』

『洪範皇極內篇』

2. 단행본

윤용남 외 역, 『완역 성리대전』5, 학고방, 2018.

주백곤,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4~6, 소명출판, 2012.

蔡 沈, 김동주 역주, 『書經集傳』1~3, 전통문화연구원, 2019.

三浦秀一, 『科擧と性理學』, 研文出版, 2016.

吾妻重二, 『宋代思想の研究』, 關西大學出版部, 2009

日本古典學會 간행, 『續山崎闇齋全集』中卷, 1936.(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四庫存目全書』卷57, 齊魯書社出版社, 1997

3. 논문

김정철, 「박세채 『範學全篇』의 판본과 구성 고찰- 장서각본 계열과 규장각본 계열을 중심으로 -」, 『장서각』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 김정철,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정철, 「낙저 이주천 「신증황극내편(新增皇極內篇)」의 특징과 가치 - 조선시대 『홍범황극내편』 연구사의 맥락에서 -」, 『민족문화논총』81, 2022.
- 김정철, 「『홍범연의(洪範衍義)』의 구성과 주자학적 특징 - 「계의(稽疑)」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6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 이대승, 「송대 도서학과 주자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선경, 「조선 전기 상수역학연구 『홍범황극내편』의 수용과 이해 -이순(李純)의 『홍범황극내편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6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
- 조희영, 「수학적(數學的) 인문학(人文學) 관점으로 본 채침(蔡沈)의 상수사상(象數思想)- 채침(蔡沈)의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6, 2016.

Abstract

The Edition of Hongbeombuwanggeukenaepyonbohae And Yi Sun's Number & Image theory of I-Ching / Kim Jeong-cheol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Lee Sun李純's edition of *Hongbeombuwanggeukenaepyonbohae* 洪範皇極內篇補解 with other editions and examine his understanding of number and image theory of I-Ching based on the parts that reflect his opinions directly. The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ree remaining versions of the book.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Bohae* 補解 manuscript housed at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is a kind of abridged edition that was created by consulting many different materials of later generations.

Secondly, the *Bohae* version housed at the Dongsan Library of Keimyung University was recently discovered and played important roles to check and discriminate the different editions. The content of its "Introductory Remarks 凡例" especially offers explicit records about Lee Sun's intention, criteria, and references for his book. It led to a chance to conduct a precise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Hongbeombuwanggeukenaepyon* among Joseon's scholars.

Finally, the Bohae edition of Park Se-chae 朴世采's *Beombakjeontyeon* 範學全篇 is different from the other editions in composition and system and contains abbreviations in some parts, but it contains the content of Bohae as completely as possible and encompasses a wide range of related materials, thus claiming its value.

Lee Sun inherited caichen 蔡沈's understanding of number and image theory of I-Ching and tried to assign 81 Beomsu 範數 to Great Plan with the Nine Divisions 洪範九疇. His approach had independent aspects but lacked consistency in some aspects. His book, however, holds important significance as the first attempt to annotate the entire *Hongbeombuwanggeukenaepyon* 洪範皇極內

篇 in Joseon.

Key words: *Hongbunbunnggeuknaetpyonbolae*, Yi Sun, Number & Image theory of I-Ching, *Beombakjeonpyeon*, Dongsan Library.